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People After God's Own Heart* 사도행전 (Acts) 13:21-23

이웃집에 처녀가 살고 있지만 먼 곳의 처녀와 결혼하는 이유는, 그 처녀가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옷을 하나 사면서도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리는 이유도, 마음에 드는 옷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음식점이 많지만 먼 곳까지 찾아가는 이유도, 내 마음에 드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에 들기만 하면 돈이나 장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The reason why a young man will marry a beautiful girl that lives far away from his home, even though he has a girl next door, is that she is a girl after his heart. The reason why we drop by many stores looking to buy clothes is that we want to buy what we like. The reason why we look for a good restaurant that is far away, even though there are many restaurants near our home, is that we eat where we want to. If something finds favor with us, money and distance don't matter to us.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똑같이 40년 간 나라를 다스렸고, 머리에 썼던 왕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In today's scripture, we can find two kings of Israel: Saul and David. The two kings each ruled over the country for 40 years and wore the same crown. However, one thing was different. King David was a person after God's heart, while King Saul was not. Why do you think God disliked the way King Saul behaved?

(1) 처음과 끝이 달랐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서서 자랑하거나 거만하지도 않고, 겸손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욕심이 생기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처음과 끝이 달랐습니다.

First, his beginning was different from his ending. When Saul became the King, he was very humble. He was not arrogant and boastful at what he accomplished, but rather he was a modest person. However, Saul gradually became a different person. He became very greedy and liked to show his name to everyone. He insisted on doing things his own way instead of listening to God's Word. God gave up on Saul because as time went by, he became a person who didn't care about God. Saul's faith in God had changed from the beginning of his reign.

(2) 사울은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이 오히려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후에도 계속 잘못을 고치지 않아서 영원한 실패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울이 잘못했을 때 사무엘의 책망을 받았지만 그는 잘못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Second, Saul did not repent from his mistakes. Everybody can and does make mistakes. However, some people can learn from their mistake and turn them into a success. Meanwhile, there are others that will keep making the same mistake and end up failing. Saul was rebuked by Samuel when he made a mistake, but yet he didn't correct his errors.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완벽한 의인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고치려고 애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들어서 그의 삶과 장래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Those that do not repent from their mistakes do not bring joy to God. God is not looking for a perfect, righteous person who doesn't have sin. Rather, He is looking for a person who knows their mistakes and tries to repent from them. Because David repented from his mistakes, he was pleasing to God and his life was blessed.

그렇다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릴 때,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입니다.

Then, what is the reason why David held a special place in God's heart? When a child brings their parents great joys, the parent's love for that child grows even more. Likewise, if God is happy with His children, then we will be loved even more by God. Most of all, our faith is what pleases God.

그러면 다윗 왕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였습니까? (1)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였습니다. 다윗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온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였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블레셋은 거인 골리앗 장군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누구도 그와 맞서 싸우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What kind of faith did King David have then to have a special place in God's heart? First, he walked before God with integrity in his heart. He served God wholly. He was a man who served God, and only God, with all his heart. When David was young, the Philistines occupied Israel with the mighty Goliath lording over them. At that time, all of the Israelites were dismayed and terrified.

다윗은 심부름을 왔다가 이 모습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를 보고 어린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어리고 몸은 작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삼상 17:45)

David did as he was instructed, went to the scene where God's army was being insulted and said that he would fight for the Lord. Even though David was young and small, he shouted at the Philistine with a strong faith in God. “You come against me with sword and spear and javelin, but I come against you in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the armies of Israel,

whom you have defied.” (1 Samuel 17:45)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용기는 믿음에서 왔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강하시며, 하나님은 칼과 단창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David had courage and did not fear Goliath. This bravery came from his faith in God. David had faith that God was with him. He believed that God was stronger than Goliath and had more power than a sword, a spear, or a javelin.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비겁하지 않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의 용기가 없기에 넘어집니다. 골리앗이 있기에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If we have genuine faith in God, we are not fearful in any circumstance. We sometimes fall down, not because of our problem though. We fall down because we do not have genuine faith. The Israelites fell down not because of Goliath. The Israelites fell down because they didn't have genuine faith.

우리가 소년 다윗처럼 작고 세상은 골리앗만큼 크다고 할지라도,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There are no problems that we should fear, even though we are small like young David and this world is big like Goliath. David believed that God is living, that He is here with us, and ruling over our lives. Additionally, he believed that in trying times God gives us whatever we ask.

(2)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였습니다. 바르다는 말은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곧은 마음을 뜻한다. 잘못을 지적 받았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여 회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Second, David walked upright before God. Upright does not mean that there are no mistakes. It means to walk honestly without a lie or an air of self-importance. It means a person that accepts their mistake when they're made aware of it and then repents from it.

회개는 겸손하고 진실한 자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바른 말로 깨우쳐 줄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정직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직은 큰 자산이며 축복 받는 통로입니다.

Repentance is God's grace to those who are humble and faithful. The reason why God gave up on King Saul was not because he had sinned, but because he didn't repent when the Prophet Samuel helped show him the error of his ways. The reason why we, our family, and our country fall down is that we are not living honestly. Being upright is the foundation that serves as the

pathway for God's blessing.

(3)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려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순종했습니다.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Third, David obeyed God no matter what He commanded to him. If you want to be a person after God's own heart, you should obey Him. David obeyed God in every situation. David had a chance to kill Saul, but he didn't because he was the anointed one. Finally, God removed Saul and placed David as a king. The very important reason why we feel like there are no blessings from God in our lives is because we are not obeying God's Word.

노아는 홍수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에 두말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죽음이 지나간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자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했을 때, 순종함으로 바다가 갈라졌다.

Noah didn't have any thoughts about building an ark. Yet once he received God's command he set out and built it. He believed in God so he obeyed without any doubt. Because of this his family was saved. When God said that if you put the blood of lambs on the sides and tops of the doorframes of the houses, death will pass over, the Israelites obeyed God and they were saved. When God said to Moses "Raise your staff and stretch out your hand over the sea to divide the water so that the Israelites can go through the sea on dry ground", he obeyed God and the sea was divided.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전혀 전망도 보이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인간의 상식과 과학을 초월한 사건들이 순종할 때 많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를만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였고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What about us? Doesn't God command us to do something even though there seems no hope that it will be fulfilled? If you obey God, He will give you His blessing. When we obey God many things that are beyond our knowledge of science and common sense, can and will happen. David prepared himself to be an instrument for God's work. So God gave Jesus Christ as his descendant and made him our Savior.

믿음의 사람 다윗은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에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유익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여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at San Antonio/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Sermon by Pastor Daesub Han/한대섭 목사

The great believer David became an instrument of God's work. David was an effective enough instrument to become an ancestor of Jesus Christ, the Messiah. People after God's own heart are an instrument to accomplish God's will. I hope that you become an essential Christian for God and His house. I pray that you all are filled with the Spirit of God so that we can become a Christian after God's own heart.